

연지化粧 연구 II

- 中國에서의 연지화장 傳播와 樣相 -

A Study on 'Yeonji' Cosmetics and Make-up II - Focusing on diffusion and aspects of 'Yeonji' make-up in China -

박춘순 · 정복희*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충청대학 패션디자인과

Chun-Soon Park · Bock-Hee J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Apparel Design, Chungcheong College

Abstract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diffusion and aspects of Yeonji make-up in China.

The diffusion of Yeonji make-up into China was achieved by Zhuang-Kun's departure for the West of China, after Emperor Moo of Han Dynasty defeated the Huns (B.C. 121). The Yeonji make-up is basically used as a unique sign and from the result of excessive development from the facial beauty point in accordance with luxurious Court culture and opening door of culture. It can diversely express kinds, names, ways, types and patterns, places and bodily parts, the colors of materials for use, and time zones of a make-up.

Key Words : Hongwha(safflower), Yeonji Cosmetics, Yeongi make-up, facial beauty, unique sign, court culture,

I. 서론

연지연구에 앞서 화장문화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제1보에서 화장의 개념과 그 기원 그리고 연지의 시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원래 연지화장이란 홍화에서 얻은 연지안료나 그 밖의 붉은색 안료를 사용하여 얼굴을 미화·수식하는 일을 말한다. 장구한 역사를 지닌 연지화장은 흉노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으로 전래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일찍부터 외지의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였던 중국에서의 화장문화 중 연지화장을 중심으로 그 전파의 시기와 배경 그리고 그 양상에 대하여 시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전파의 시기와 배경

기원전 9~7세기경 이미 파미르고원 서쪽은 오아시스로(路)의 기본적인 교통망이 갖추어졌고, 기원전 6세기에는 서북 인도의 간다라 지방이나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드 지방으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사통팔달 공로(公路)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 전반에 흑해연안의 스키타이는 알타이지방과 중계교역을 행하였다고 하며, 스텝지대의 유목민의 증계에 의해 기원전 6~3세기에는 춘추 전국시대 중국과도 연결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기원전 3세기경 몽골리아를 제패한 흉노는 남으로는 漢제국을 정치 군사적으로 압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 무역로의 간선(幹線)이 지나가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대를 장악하여, 漢과의 화해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막대한 량의 비단을 西아시아에까지 수출하고 있었다.¹⁾ 즉 기원전 198년 漢의 유방(劉邦)은 황실의 딸을 흉노의

* Corresponding author: Bock-Hee Jung
Tel: 043) 230-2182, Fax: 043) 230-2469
E-Mail: jbh@ok.ac.kr

2대 모돈선우²)에게 주어 처³)를 삼게 하고, 매년 많은 견직물과 쌀, 술 등을 흉노에게 보낼 것을 조건으로 화의를 맺었다⁴). 그리고 흉노는 중국의 中原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인후부(咽喉部)인 하서회랑(河西回廊)지대(지금의 감숙성)에서 동서 중계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월지(月氏)를 축출하고 동서 교통로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군신선우⁵)때는 漢의 북변을 여러 번 침공했으며, 漢의 경제(景帝) 때에는 그 곳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고 공납(貢納)도 받으면서 교역하였다. 그 후에 호한아선우⁶)도 漢나라 원제(元帝)의 後宮 왕소군(王昭君)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영호아씨(寧胡關氏)'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원전121년(武帝.B.C.141~B.C.87) 漢은 흉노를 격파(擊破)하고 기련산과 燕支山(焉支山)을 차지하였다.⁷ 이로써 파미르고원 동쪽의 실크로드가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부각되었다. 이후 서역제국⁸)의 漢에 대한 끊임없는 조공사절(朝貢使節)의 내왕과 중국 쪽 사절단의 파견과 더불어, 일종의 조공무역의 형태를 띤 서역무역이 본격화하게 되었다⁹).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 주변의 여러 유목기마국가¹⁰)의 번성·흥망과 더불어 교역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중국에서 홍화장(紅化粧)의 기원은 상주(商周) 때이며, 연지인 홍화가 전해 들어오기 전 중국 여인들은 주사(朱砂)를 홍장(紅粧)의 재료로 사용했다.¹¹ 한대(漢代)에 이르러 비로소 흉노 지역에서 중국으로 연지가 전래되어 부녀자들이 화장품으로 애용하게 되었다. 문헌에 장건(張騫)이 서역 여러 나라에 출사(出使)(B.C.139~B.C.126)하여 처음 홍화의 씨를 얻어왔다고 한 것¹²)으로 미루어, 한대(漢代)에 이르러 연지(焉支; 홍화)의 씨를 가져다 인공 재배하여 연지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대(晉代)의 문헌기록에도 "황람(黃藍)은 장건(張騫)이 가져와 오늘날의 창위(滄衛;地名)에 씨를 뿌렸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고 그 꽃을 따 마르기를 기다려서 견에다 물들이는데 선명한 붉은 색이다. ……그 풀을 '홍화(紅花)'라 하는데 견에 물들이고 남은 것은 연지를 만든다."¹³ 라고 기록되어 있어 대체로 그 종자를 휴대하고 와서 재배한 것으로 추측된다. 『중화고금주』¹⁴)에 연지산에서 나는 연지는 야생종으로 삼주와 비슷하고 꽃은 민들레와 비슷하다고 했다. 이를 중국인들은 '홍람(紅藍)' 일명 홍화라 하였으며 이것을 원포(圓圃)에서 길렀다고 한 것을 보면 흉노족처럼 야생 연지초로 연지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재배한 홍화에서 연지를 제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중국으로의 홍화 유입은 연지화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삼분정년의 견해로도 중국 고대의 화장실태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한당(漢唐)의 제장(啼粧) 역시 토번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향달(向達)은 당시 토번의 풍속과 둔황 벽화로 미루어 서역을 경유하여 장안에 들어왔다고 하였다.¹⁵ 발달된 외지 화장문화의 중국 유입과 영향을 유추케 하는 직접적인 단서라 하겠다.

또한 당대(唐代)에는 영토확장으로 인한 국경의 와해로 세계제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긴밀해져 인구 백만의 대도시였던 당의 수도 장안(長安)에는 각 국에서 온 망명객·사신·유학생·승려·직업 예술인·상인 등 왕래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長安의 외국인에 관한 상원졸장,¹⁶ 향달¹⁷ 등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동서교류 및 교역에 종사하는 이 외에도 각각 특기를 살려 출신국의 국명을 성으로 삼고 당왕조(唐王朝)에서 관직을 받기도 하였다. 이들 이민족은 그들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중국문화에 적응하는 한편 중국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당나라 사람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페르시아·돌궐·위그르 등 서역 및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요소가 융합된 국제적 색채가 풍부한 문화가 현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외래 요소의 호풍(胡風)은 호궁(胡弓)·호가(胡歌)·호무(胡舞)·호희(胡姬)·호주(胡酒)·호적(胡笛)·호상(胡床)·호과(胡瓜)·호도(胡桃)·호접(胡蝶) 등 다양하다. 이러한 외래문화에 대한 명칭은 중국인이 胡의 문화를 경멸의 의미가 아니라 귀중하게 여기는 의미로써¹⁹, 당시에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인 데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다양한 용어들을 통하여 북방 기마민족이나 서역과의 교역과 교류가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문화의 전파와 변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대 현종 말년 안록산의 난 이후에는 여자들의 머리모양, 화장법 등에 토번의 양식이 나타나기도 했음은²⁰ 胡의 문화가 한족(漢族)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민감하게 이루어졌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연지화장의 전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활발한 파급이 가능했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II. 연지화장의 시대별 양상

1. 上古·秦·漢·魏晉南北朝시대

하남 안양 은허(河南 安陽 殷墟)에서 상대(商代)에 宮의 귀족 부녀자가 사용하던 구리거울·빗·귀후비개·비

수(단검) 외에 주사(朱砂)를 갈 때 사용하는 옥절구, 절구 공이 및 조색반(調色盤)과 같은 생활도구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위에 모두 주사(朱砂)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²¹⁾ 이는 곧 화장용구에서 주사가 발견되었다는 뜻이며, 이것으로 홍화장을 유추할 수 있다. 주대(周代) 『시경』에 남편이 멀리 떠나면, 부인이 머리를 산발하고 치장하지 않는 데, 이것은 결코 보양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화장하는가²²⁾라는 기록이 있고, 여기에서 고대 부녀자들이 얼굴을 치장하는 습관의 기원이 상당히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 하남성 신양장대관(信陽長臺關) 1호 묘에서 출토된 여자목용(木俑)의 얼굴 전체와 손에는 붉은 옷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생적 연지化粧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송옥(宋玉)의 「신녀부(神女賦)」에 “눈썹을 얇고 투명하게 나방이 날아가듯 그리고 입술은 주사와 같이 붉은 윤기가 나고 선염하다.”²³⁾라는 기록이 있고, 1949년 호남 장사시(長沙市) 교외 진가대산(陳家大山) 초나라 묘에서 출토된 백화(帛畫)²⁴⁾에도 여자의 입술 및 옷소매에 붉은 점(朱點)이 있었다.²⁵⁾ 이것은 붉은색에 의한 입술化粧이 매우 섬세하게 행해졌다는 증거이다.

당나라 우문사의 「장대기」에도, “진시황이 宮에서, ……모두 붉게化粧을 하고 먹으로 눈썹을 그리게 했다²⁶⁾고 하는데, 여기에서 홍장(紅粧)은 주사 등의 광물질 안료를 섞어서 만든 정분(輕粉)을 말하는 것²⁷⁾이라고 한다. 이는 연지(胭脂)가 도입되기 전에 중원의 여인들이 하던化粧이다.

호남(湖南)·장사(長沙)·강소(江蘇)·양주(揚州) 등지에서 발견된 漢나라 묘에서도 입술연지를 볼 수 있다. 비록 땅속에 이천여년간 묻혀 있었지만, 발굴되던 당시化粧함 안에 있는 순지(脣脂)의 빛깔과 광택이 여전히 산뜻하고 아름다웠다²⁸⁾고 한다. 여기에서 순지는 입술化粧용 연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입술연지 바르는 것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나라 유희의 「석명」 석수식(釋首飾)에도, “순지(脣脂)는 단(丹)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바르면 입술이 붉은색으로 될 수 있다.”²⁹⁾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볼 때 홍化粧의 가장 이른 재료는 그 원료가 단(丹)인 주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지가 중국에 도입된 이후 비로소 입술연지를 만드는 원료로 연지를 사용했다. 한대에 사회경제가 고도로 발전하고 심미의식이 제고됨에 따라化粧의 풍속도 새로운 발전을 했다. 귀족이나 평민 계층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자신의 얼굴 치장을 중시하였는데, 그 중 후한(後漢) 말년 환제(桓帝) 때 대장군(大將軍) 양기(梁冀)의 아내 손수(孫壽)는 제장(啼粧)으로 유명하였다. 이 제장은 흰 분을 얼굴에 바른 후 연고(油膏)를 눈 밑에 얇게 펴 발라 사람

들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였다³⁰⁾고 한다. 당시 여인들은 이것을 신기하게 여겨 서로 앞다투어 모방하였다고 한다. 또한 유효성의 詩 「망부명」에는 “검은 색으로 눈썹을 그리면 걱정이 있는 듯하다. 제장은 진홍으로 그린다”³¹⁾고 하여化粧 방법이 다른 제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²⁾. 호북 강릉의 전한(前漢)묘에서 출토된 채색 목용(木俑)에서는 입가에 찍힌 ‘的’을 볼 수 있으며, 한대에 유명한 옹백(翁伯)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고(脂膏)를 팔아 현(縣)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한다.³³⁾ 이것으로 미루어 당시에化粧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 여인들의 입술 그리는 방법은 위는 작고 아래는 크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렸다. 윗입술 중앙에 움푹 들어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날카롭게 올라갔다. 입 모서리 부분은 분으로 가렸다.

삼국 동오(東吳)시기 호북 무창(武昌) 연계사(蓮溪寺)의 영안(永安) 5년(262년)의 4좌대(四座帶) 고분에서 출토된 많은 도용의 이마와 눈썹 중앙에 둥근 모양의 장식품이 붙어 있었다. 이것으로 민간에서 이마에 그리는 풍속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화전(花鬪)(花子)의 원시형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대기록³⁴⁾을 볼 때 불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유추된다.

삼국시대 위왕찬(魏王粲)의 「신녀부(神女賦)」에는 “옷을 벗고 머리를 올리지 않는다. 화적(華的)을 그리고 머리에 우차(羽釵)를 꽂는다”³⁵⁾라는 기록이 있고, 진(晉)나라 부현(傅玄)의 「경부(鏡賦)」에도 “명주 귀고리가 흔들린다. 쌍적(雙的)을 그리니 더욱 아름답다”라는 문구가 있다.³⁶⁾ 이것으로 볼 때 기호적 연지化粧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晉)나라 왕가의 「십유기」에, “많은 사람들이 총애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붉은 연지(丹脂)³⁷⁾를 양 볼에 바르면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³⁸⁾는 기록을 볼 때 그 당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연지化粧이 필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진 남북조시대에는 북방 소수민족의 세력이 점차 중원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중원(中原) 사람들이 남쪽으로 옮겨가서 각 민족의 경제와 문화가 교류되고 융합되었다. 게다가 사회풍조도 소박한 것을 벗어나 화려하게 변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남조 정권의 통치 아래에서 더욱 뚜렷하였는데, 중국 여인들의化粧 기교가 이 시기에 점점 성숙해져갔고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진시황 때 궁에서 꽃을 붙이던化粧법은 이 시대에 이르러 양식의 변화가 많아졌고 색깔도 아름다워졌다. 또한 위진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분(脂粉)류의化粧품 제작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상품의 질과 양이 높아졌으며 이익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관청이 화장품 제조업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관아와 민간이 이익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³⁹⁾

남북조시기에 들어 사람들은 연지(燕支)에 우수(牛髓)나 돼지기름 등의 물질을 첨가하여 일종의 윤활적인 지방으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燕支는 또한 '연지(胭脂)'라고 쓰게 되어 '지(脂)'자는 이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⁴⁰⁾

이 시대 연지 발달상의 한 모습을 하나의 특수한 예화(例話)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나라 문제(文帝)(曹丕)가 설야래(薛夜來)라 불리는 궁녀를 매우 총애하였는데 어느 날 밤 문제가 등불 아래서 책을 보는데,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수정으로 만든 병풍에 설야래(薛夜來)가 조심하지 않아 부딪혀서 상처가 났다. 그러나 문제의 눈에는 그 상처가 새벽노을이 흩어질 때처럼 붉으스름해서 아름답게 보였고, 때문에 文帝는 그녀에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다. 궁녀들은 이를 보고 연지로 유사한 혈흔을 그렸고, 이를 '효하장(曉霞粧)'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당나라 때 특수한 화장 방식인 사홍(斜紅)(일종의 볼터치)으로 변화 발전하여 당대(唐代) 여인들 사이에서 성행했다고 한다. 이 설화는 당시 연지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화장과 화장효과에 대한 관심은 다른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남조 제사조의 「증왕주부」詩에 “해가 질 때 창가에 앉아 있는데 홍장(紅粧)의 색이 곱다”⁴¹⁾라고 저녁 노을에 비친 홍화장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양나라 무릉왕(武陵王)의 「명군사」에도 “누군가 거울에 비쳤는데 홍장을 한 자신의 얼굴이다”⁴²⁾라고 하여, 자신의 모습을 얼른 알아보지 못할 만큼 달라지게 화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보조개 화장도 있었다. 이는 '면엽(面靨)'이나 '장엽(粧靨)'이라 부르며 소위 보조개라고도 한다. 장엽화장술은 삼국시대 오나라 손화(孫和)의 등(鄧)부인이 기원⁴³⁾이라고 한다. 손화는 등부인을 상당히 총애했다. 한번은 손화가 술에 취해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주의하지 않아 등부인의 왼쪽 뺨에 상처를 입혀 피가 났다. 손화는 황실의 시의에게 약을 조제하여 치료할 것을 명했다. 시의(侍醫)는 약에다 수달의 골수와 옥과 호박(琥珀)가루를 더했다. 그런데 호박가루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얼굴에 붉은색 흔적이 남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래서 많은 시녀들이 총애를 받고자 다투어 이를 모방하였다.⁴⁴⁾ 이런 화장을 '면엽장(面靨粧)'이라 일컬었다고 한다.

또 '점장(點粧)'이 행해졌는데, 이는 고대⁴⁵⁾ 궁정생활의 특수한 기호였던 '단적(丹的)'이 변화 발전한 것이다. 고

대 천자와 제후에게는 많은 시녀가 있었다. 평소에 여사관(女史官)이 시녀를 안배하여 교대로 제후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어느 시녀가 월사(月事)가 있어 시중을 들 수가 없었는데, 이를 말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럴 때 스스로 얼굴에 붉은 점으로 표시를 하면 여사관이 보고 시중드는 명단에 넣지 않았다. 이러한 '점단적(點丹的)'이 점점 민간에 전해지면서 점차 하나의 화장수단이 되어 유행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마에 하면 '천장(天粧)'이라 부르고 양 볼에 하면 '쌍적(雙的)'이라 불렀다는 것이다.⁴⁶⁾

화전(花鈿)⁴⁷⁾은 화자·면화(花子·面花)라고도 표현되었는데, 일종의 이마화장이다. 그것의 발생에 대해서는 진(秦)나라 때 생겼다는 설, 남조때 생겼다는 설, 당나라 때 생겼다는 설 등 여러 가지이나 남조 때의 설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즉 송 무제(武帝)의 딸 수양공주가 하루는 함장전(含章殿) 처마 밑에 누워 쉬고 있을 때 함장전 앞의 매화나무에서 바람에 매화꽃이 떨어졌다. 꽃은 공주의 이마 한 가운데에 떨어졌다. 공주는 꽃을 손으로 털어내지 않고, 3일 후에 씻어 냈는데 이마에 다섯 꽃잎의 형태가 물들어 있었다. 궁중의 다른 여자들이 이를 보고 매우 신기해하였다. 그리고 이 무늬를 다투어 모방하다 보니 하나의 유행을 이루게 되었고, 이런 화장을 '매화장(梅花粧)'이라고도 불렀다. 그 밖의 설은 오대 마호의 「중화고금주」에서 볼 수 있는데, “진시황이 신선을 좋아해서 종종 궁중의 사람들에게 신선의 머리 모양처럼 하도록 명했다. 오색 화전(花鈿)을 붙이고 구름 모양의 바람과 호랑이가 날아오르는 모양으로 그렸다.”⁴⁸⁾는 기록이 그것이다. 또한 당나라 단성식의 「유양잡조」에도 “요즘 여인들은 얼굴장식에 화전을 사용한다. 상관소용(上官昭容)⁴⁹⁾이 만들었는데 흔적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⁵⁰⁾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이야기는 곧 “천후(天后;武則天)가 매번 재신(宰臣) 이대사(李對事)와 일을 상의하였는데, 하루는 소용(昭容)이 그것을 몰래 엿들었다. 황제가 이를 발견하고 신하를 물러가게 한 후 크게 노하여 갑도(甲刀)라는 칼을 소용의 얼굴에 던지고는 그녀에게 그 칼을 뽑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소용은 그 칼을 뽑아 달라고 청하는 시를 읊었으며 나중에 화전을 이용하여 그 상처를 가렸다”는 고화(古話)⁵¹⁾를 말하는 것이다.

위진 시기 여자들의 입술 그리는 방법은 납작한 모양이 많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입술형을 기초로 하여 약간 더하거나 빼는 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른 화장기법은 윗입술 중앙은 확실히 움푹 패이게 하고 입가의 모양은 뚜렷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효작의 詩에 “말을 탄 젊은 남자가 보이지 않으니 헛되이 홍장을 하였구나”⁵²⁾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공들여 화장한 것이 헛수고가 되

있음을 아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북조때 어떤 사람이 「목란시(木蘭詩)」에서 “언니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에서 흥장을 하네”⁵³⁾란 표현이 있는데, 반가운 손님을 맞기 위해 화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흥장은 아니나 이마에 황색으로 화장하는 ‘액황(額黃)’이 있으며, 이는 남북조 이후에 생긴 습속이다. 이런 풍속의 생성은 불교의 성행과 관계가 있다. 한위(漢魏) 이래 중국사회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혼란한 상태여서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다. 이 무렵 불교가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의지처를 찾게 했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불교를 믿으며 고통을 인내하면 내세에 다시 태어나 행복을 누린다고 깊이 믿었다. 각 나라의 통치자는 사람들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통치를 하고, 강력하게 불교를 제창하고 성행하게 했다. 그리하여 북위 시대에는 사원이 3만여 곳에 이르고 승려수가 2백여만 명에 달했다⁵⁴⁾. 불교사상이 널리 전파되어 침투함에 따라 불교예술도 중국에 들어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자들이 이마를 황색으로 장식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 배경과 관계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불상에 금칠을 하는 것에서 착안해낸 것으로, 자신의 이마를 황색으로 물들여 새로운 화장풍조를 만들어낸 것이다.⁵⁵⁾ 요송(遼宋) 시기에 북방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여인들도 이마에 황색을 칠하였는데, 이것을 ‘불장(佛粧)’이라 불렀다고 한다. 불교의 융성이 화장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隋·唐·五代

수(隋)나라 여자들의 화장은 비교적 소박하여 위진 남북조처럼 많은 변화도 없었고, 당대처럼 다채롭지도 않았다. 일반 부녀자에게는 화장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주로 궁녀들만 화장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궁중의 화려한 화장 풍조는 민간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⁵⁶⁾ 송나라 고승의 「사물기원」에 “수(隋)나라 때 궁중에서 흥장을 했는데 이것을 도화면(桃花面)이라 했다.”⁵⁷⁾는 기록이 당시 궁중의 화장문화를 전하는 자료로 참고가 된다.

당대(唐代)에는 국세가 강성하고 경제가 번영하여 사방의 소수 민족과 광범위하게 접촉하였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영향을 받아 사회 풍조가 개방되고 여자들 사이에 유행을 따르는 것이 성행하여, 괴이하고 신비한 것을 숭배하는 바람이 일었다.

명황(明皇)은 때때로 근정루(勤政樓) 앞에서 대회를 열어, 교방(敎坊)의 수백 명 관기들이 춤추고 노래하게 하였다. 당시의 황실은 이와 같이 백관문사(百官文士)가 주연을 베풀고 기생을 데리고 노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리고 많은 귀족 부호들은 은밀하게 기생을 데리고 있었다. 관기(官妓)나 사기(私妓)를 막론하고 이런 여자들은 화장을 질게 하고, 또한 화장을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런 풍조와 배경 아래 여자 화장의 발전과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일단 신기한 화장 방식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서로 모방하여 곧 유행을 이루었다. 특히 당시의 수도인 장안은 많은 소수민족 및 외국인인 거주하고 있어서 중국과 서방문화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⁵⁸⁾

서방 소수민족의 영향으로 여자들이 가혹한 예교(禮敎)에서 벗어나게 되어 상대적으로 얽매임이 비교적 적었다. 그리하여 얼굴 화장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이때에 완비되어 발전했다. 각기 다른 눈썹 모양, 입술 모양, 각각의 변화에 맞는 머리 모양, 색깔의 농담이 다른 뺨, 형형색색의 보조개, 액황(額黃)과 화자(花子) 등 여자들 얼굴 부위의 화장도 다채롭고 변화도 다양했다. 두보의 「신혼별」 가운데 “치마는 만들지 않고, 낭군을 맞이할 때 목욕하고 붉게 화장한다”⁵⁹⁾라는 구절이나, 이백의 「완사석상녀」詩에 “넋가에 아름다운 여인이, 눈썹은 푸른색 나방모양으로 그리고 흥분으로 화장을 한다”⁶⁰⁾는 표현, 그리고 왕건의 「궁사」에 “궁에 있는 여인들이 모두 흥장을 했다. 새로 산 활처럼 모두 제각각 이구나(개성이 있고 아름답다)”⁶¹⁾는 등의 표현에서 당시에 연지 사용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대 사람인 왕인유의 「개원천보유사」에 양귀비를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귀비는 매번 여름이 되면 종종 가벼운 생사 옷을 입었다. 시녀로 하여금 부채질로 바람을 내게 하였는데 마치 더위를 모르는 것 같았다. 매번 땀이 나면 땀이 붉게 흐르고 향기로웠다. 그것을 수건으로 닦아내면 그 색이 연분홍색 같았다”⁶²⁾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연지를 바르기 때문에 땀조차도 붉게 물들었다는 말이다. 왕건의 「궁사」에도 이와 유사한 묘사가 있다. “춤을 추니 비단옷이 땀으로 젖었네. 위층에 있는 사람이(춤을 춘 궁녀) 옥계단에 기대어 내려와 마당에서 세수를 하는구나. 금세수대야의 물에서 붉은 진흙이 잡힌다.”⁶³⁾ 여기에서 양귀비와 궁녀의 흥장은 그 재료가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위장(韋莊)의 「강성자」詞에 “붉은 입술이 움직이면 입술연지의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다.”⁶⁴⁾에서와 같이 순지(脣脂)라 하던 입술연지는 수당 이후 “구지(口脂)”라 불렸다. 이는 불완전한 호상(糊狀)으로, 뒤에 가공

하여 고체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나라 원진(元稹)의 「앵앵전(鶯鶯傳)」에 경성에 갔던 장생(張生)이 화장 용품을 가져와 최앵앵(崔鶯鶯)에게 전하였는데, 그녀가 장생(張生)에게 쓴 답장 속에 '혜화성(惠花勝;화장품이름) 한 상자와 5寸의 입술연지'65)라는 구절이 있음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관(管)의 형태이며 수당 시기의 5寸은 오늘날 15cm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당시 입술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여 그 변화가 풍부하였다. 분으로 입술을 하얗게 바른 후에 연지로 앵두같이 작고 짙게 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입술 형이었다. 대부분 입술 중간에 위치하도록 그렸으며 당시의 이런 풍조는 보편적이었다.

일반 여인들도 화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신강 토로번(吐魯番) 아사탑나(阿斯塔那)(투르판; 아스타나) 제201호 당나라 묘에서 출토된 토용은 대부분이 일하는 여자들의 형상이었는데 그들의 양 볼에는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 또한 7~10세기의 투르판 아스타나 40호 고분의 비단에 그려진 복희·여와도(伏羲女媧圖)中 여와의 뺨에도 연지를 찍은 모습이 보인다. 중국 고대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說이 있었는데, 여와가 잡고 있는 규(規: 콤파스)는 하늘을 상징하며, 복희가 잡고 있는 구(矩: 곡尺)는 땅을 상징한다. 전설에 따르면 인류는 오빠인 복희와 누이인 여와가 서로 혼인해서 생겨났다고 한다66). 이들은 전설상의 신(神)으로서 복희는 농업·목축의 조상(祖上), 여와는 그 여동생으로 치수·토목(治水·土木)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생활에 있어서 의식주의 기초를 세웠다. 이러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후에라도 의식주에 고통받지 않는다고 하는 일종의 주술신앙이 한민족 사이에는 뿌리깊게 전해져 왔었다고 한다.67)

섬서서안(陝西西安)에 있는 당대(唐代) 선우정희(鮮于庭誨)의 묘, 하남낙양 맹진(孟津)의 당경씨(唐峴氏) 묘 및 신강 토로번에 있는 당대 장웅(張雄)의 묘에서 출토된 채색된 여목용(女木俑)·여토용(女陶俑)의 양 볼에도 눈에 띄게 진한 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唐代 여인들은 진한 얼굴화장을 하였고, 색채도 매우 선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성식의 「유양잡조」에 “방유(房孺)에게 최씨 부인이 있는데 질투가 강하여 하녀들이 짙은 화장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매달 아주 적은 양의 연지와 분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68) 이것은 당시의 연지화장이 하녀층 일반에게까지 널리 일반화되어 있었던 사실과 함께 짙은 화장이 선호되었음을 알게 한다.

단성식의 「유양잡조」에 “사대부 부인들이 하녀나 첩을 많이 질투하였다. 그래서 월점(月點), 전점(錢點)을 얼

굴에 찍어 늘 화장하였다”69)는 구절이 있다. 성당(盛唐) 이전에 대부분 얼굴 양쪽에 콩처럼 둥글게 그렸던 보조개는 이처럼 성당(盛唐) 이후에는 모양이 다양해졌다. 어떤 것은 동전 같아서 '전점(錢點)'이라 부르고 어떤 것은 복숭아나 살구 같아서 '행엽(杏靨)'이라 불렀다. 또한 보조개 사방에 각종 화훼도안으로 장식하는 것도 있었는데 '화엽(花靨)'이라 불렀다. 그리고 화훼도안의 위치는 주로 입가나 콧망울 양쪽에 그리기도 하는데 일정치 않았고 갈수록 복잡해져서, 새·짐승 도형도 있었으며 얼굴 가득 붙이기도 하였다.70)

남북조 시대에 비롯된 '사홍(斜紅)'의 화장법은 당나라 때에 성행하였다. 고분에서 출토된 여용(女俑)에는 얼굴 양쪽에 붉은 색의 초승달 모양을 한 사홍이 있다. 일반적으로 좌우 광대뼈 바깥 측에서 태양혈(太陽穴) 부분에 각각 그렸는데, 색깔이 진하고 형상이 터무니없고 황당하였으며 어떤 것은 복잡한 상흔 같았고 구불구불하게 그렸다. 가희(歌姬)와 무희(舞姬) 사이에서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명문귀수도 이에 심취해 있었다. 신강 아스타나 당묘출토(唐墓出土) 건화(絹畫)나 당인(唐人) '복희여와도(伏羲女媧圖)'나 니수목신용(泥首木身俑)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또한 당나라 원진의 「유소교」詩에, “눈썹을 길게 그리지 말고 짧게 그려라. 사홍(斜紅)을 세로로 그리고 직선으로 그리지 마라”71)라는 기록이 있고, 나규의 「홍인」詩에 “매우 진하게 얼굴에 비스듬히 그리고, 화장은 말할 필요 없이 한 송이 꽃이 되었다”72)라고 묘사되어 있다.

진(秦)나라부터 수(隋)나라까지 주로 궁중에서 행해졌던 화전(花鈿) 화장은, 당대(唐代)에는 이마뿐만 아니라 미간과 눈가에도 장식하는 등 매우 성행하였다. 가장 간단한 화전(花鈿)은 작은 원을 그리는 것이었다. 신강 토로번(투르판)의 당대 묘에서 출토된 토용(土俑)의 이마에는 둥근 점이 칠해져 있다. 화전(花鈿)은 대개 금박·색지(色紙)·물고기 볼기뼈·운모조각·자개(螺鈿)·차유(茶油)꽃·물총새깃털 등의 재질을 각종 꽃 모양의 조각으로 잘라서 아교로 붙였으며, 만발한 아름다운 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화전장(花鈿粧)'이라고 불렀는데 그 모양에는 매화가 가장 많았고 이외의 각종 화훼도 많았다. 소빨·부채·복숭아 모양도 있고, 형형색색의 추상적인 도안도 있었다.

화전(花鈿)의 색깔은 재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으로 인하여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황금색·청록색·진홍색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금박은 황금색, 물고기 볼기 뼈와 운모조각은 흰색, 물총새 깃털은 청록색, 그밖에 색지는 여러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여러 색을 물들여 다채롭게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73) 당나라 이부언의 「속현괴록」 정혼점에 “(韋固) 아내에게 딸이 하

나 있었다. 16,7세이고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미간에 종종 화전을 붙였는데 목욕하거나 쉴 때에도 화전을 떼적이지 않다.”⁷⁴⁾는 구절이 있어 화전의 애용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입술을 붉게 칠하는 입술장식은 각 민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장이지만 원래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이라 하였다.⁷⁵⁾ 중국 부녀자들의 입술 그리는 습속은 고대부터 행해졌는데, 이것을 점순(點脣)⁷⁶⁾이라고 하였고 순지(脣脂; 입술연지)를 입술 위에 바르는 것을 말한다.

여자의 입술연지인 구지(口脂)는 색을 갖고 있고 비교적 강력하게 커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입술 형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입술이 두터운 사람은 얇게 그려 변화시키고 입술이 큰 사람은 작게 그려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처럼 점순 기법이 전보다 발전하여 점순 형식의 변화가 풍부해졌다. 중국 부녀자들의 입술 그리는 양식은 일반적으로 교소농염(嬌小濃艷)을 가장 좋아하였으며, 보편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입술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앵두와 같이 작으면서도 선명하고 짙은 모양이었다.

당나라 잠참(岑參)의 「취희두자미인(醉戲寶子美人)」詩에 나오는 “주순일점도화은(朱脣一點桃花殷)”이란 구절은 입술화장을 형용한 것인데, 이는 오늘날 신장 투르판 아스타나 당묘 출토의 혁기사녀도(弈棋仕女圖)와 당나라 사람의 인지도(麟趾圖)에서도 볼 수 있다.

晚唐 五代 부녀자의 입술화장 양식은 매우 특징이 있다. 송대 도곡의 『청이록』에, “희소(僖昭; 황제)때 모든 가무인(歌舞人)들은 입술을 화장하는 데 서로 경쟁을 했다. 여인들은 한 번 이것을 사용하고 아름다운지 여부를 판단했다. 입술 그리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⁷⁷⁾고 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무려 17 종⁷⁸⁾이나 되었다.⁷⁹⁾

이런 입술 그리는 방식의 대부분이 기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이들 방식은 당시에 신기한 것으로 여겨져 민간 여자들이 모방을 했다. 그러나 唐代에 입술에 오고(烏膏)를 칠하고 얼굴을 붉게 칠하며(赭面) 눈썹은 가는八字로 그려서 비탄에 빠진 듯한 모습(啼粧)⁸⁰⁾을 연출한 풍조도 유행하였는데, 백거이(772~846)는 그의 詩 「시세장」에서 이 화장의 정황을 읊으면서 “……미와 추 흑과 백 모두 본래의 모습을 잃었고 슬퍼서 우는 것 같다”⁸¹⁾고 했다.

얼굴 전체를 붉게 칠하는 자면장(赭面粧)은 향달도 말했듯이 원래 吐蕃(티벳)의 풍속⁸²⁾이라고 한다. 토번의 송첸감보(棄宗弄贊)⁸³⁾에게 시집간 文成공주는 이 자면을 심히 싫어하였으므로 송첸감보는 자면의 관습을 폐하고 唐의 것을 따르도록 했다⁸⁴⁾. 『당어림(唐語林)』에는 장경(長慶)(820~821)연간에 유행한 혈운장(血暈粧)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눈썹을 밀어 없애고 붉게 화장한 것을 말한다. 文宗은 의복사치 금지령을 내릴 때 고계·검장·거미·개액(高髻·臉粧·去眉·開額)을 금하였는데, 이는 각각 토번계·토번장·혈운장·화전(吐蕃髻·吐蕃粧·血暈粧·花鈿)을 금한 것이다. 그러나 五代 때에는 돈황 석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화장이 더욱 유행하였다.⁸⁵⁾

그밖에 색이 없고 투명한 면지(面脂)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면택(面澤)’·‘석지(腊脂)’·‘지고(脂膏)’라고도 부르며 줄여서 ‘지(脂)’라고도 했다. 이것은 우유·마유·우수·저이·광물납(牛油·麻油·牛髓·猪胰·鑛物蠟) 및 각종 식물 향료와 조합해서 만들어진 연고(油膏)이다. 이것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되었고 얼굴 색을 더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했으며, 면지(面脂)에 약물을 섞어서 피부가 갈라지는 것을 치료하고 보호하여 얼굴이 늙지 않게도 하였다. ‘脂’는 면지와 순지(脣脂) 두 종류를 포함한다. 면지의 명칭에는 ‘雪’자가 붙는데 색깔에 따라 자설·홍설·벽설·향설(紫雪·紅雪·碧雪·香雪) 등의 이름이 있다. 사유의 『금취편』에도 기록⁸⁶⁾이 있는 것으로 보아 漢代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唐代부터 조정에서 거울에 관리들에게 면지(面脂)를 하사했던 사실이 주목된다. 즉 두보(杜甫)의 석일(腊日)에 “구지(口脂)와 얼굴에 바르는 약을 황제가 기쁘게 하사하였다. 비취빛 관과 은빛 병이 하늘에서 내려왔다”⁸⁷⁾라는 기록이나, 유우석의 『유우석집』에 “(사신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나에게 자설·홍설·면지·구지(紫雪·紅雪·面脂·口脂) 각각 한 각, 가루비누 한 포대를 하사하였다”⁸⁸⁾라고 한 기록, 그리고 단성식의 『유양잡조』에 “납일⁸⁹⁾에 북문에 사는 學士에게 구지·사지(蜡脂)를 하사하였다. 흰색 통에다 구지와 사지가 담긴 것을 하사하였다.”⁹⁰⁾라고 한 기록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남자들의 구지는 일종의 투명한 순고(脣膏)로 입술 위에 발라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여 주로 겨울철에 사용하였다⁹¹⁾고 한다. 唐代 이후가 되면 부녀자들의 화장 양식은 매우 변화되었지만 붉게 화장하는 행위는 여전히 성행하였다.⁹²⁾

五代 때에는 보조개 화장(粧靨)이 크게 발전하였다. 여자들은 흔히 차유(茶油) 꽃으로 만든 크고 작은 꽃과 새도안을 얼굴 가득히 붙였다. 평소에는 銀으로 새겨 장식한 작은 상자 안에 넣어두고 사용할 때에는 물고기 부레로 만든 아교로 붙였는데, 입김을 ‘호’하고 불어 침을 묻혀 얼굴의 필요한 곳에 붙일 수 있었다. 이러한 화장술은 서북 소수민족 여자들이 하는 것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五代前 촉위장의 「탄낙화」詩에, “서자(西子)가 소엽(笑靨)을 남기고 떠나간다. 가는 곳마다 금전(金鈿)이 떨어져 아름다다.”⁹³⁾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엽은 보조개화장을 말한다. 그런가 하면 화전에 대한 기록도 보

이다. 五代 장부인의 「습득위씨화전이시기증」에, “오늘 화장대 앞에서 옛날의 화전을 주웠다. 분의 흔적이 아직 있었고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색깔은 아직 선명하였다. 부드러운 손으로 이것을 미간에 붙였다.千金(딸의 이름)을 웃게 하였는데 어찌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는가?”⁹⁴⁾라는 표현에서 볼 때 화전은 여전히 중요한 화장 재료로 여겨지고 애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거이의 「안이화(岸梨花)」詩에, “젊은 여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백장(白粧)을 하고 열은 녹색의 치마를 입는다.”⁹⁵⁾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여인들은 喪을 당하면 보통 백장을 해서 애도를 표했다. 이는 그만큼 화장이 더욱 기능화되고 세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3. 宋·遼·元·明·清代

宋朝는 북방의 遼·金·元 등과 동시에 주요 패권을 함께 했고, 遼(거란족;契丹族)·金(여진족;女眞族)·元(몽골족;蒙古族)의 북방민족이 중원에 입주한 후 한족과의 경제·문화·생활풍속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하여 서로 영향을 미쳤다. 송나라 때에는 홍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홍장은 젊은 여자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홍장은 ‘홍검(紅臉)’ 또는 ‘주안(朱顏)’이라고도 불렀다.

홍호의 「소정락성도궁유시차운이사」詩에 “옷을 풀어 헤치고 머리는 산발하고 술에 취해도 괜찮다. 하물며 紅粧을 한 16명의 젊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⁹⁶⁾라는 구절에서 젊은 사람이 홍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식의 「남가자」에 “붉은 얼굴, 작고 가는 허리의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 사뿐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니 매우 즐겁다”⁹⁷⁾라고 했고, 조보지의 「자고천」에는 “서루(西樓)의 연못 주위에서 노래하는데 반드시 홍장을 하고 먹으로 눈썹을 그린 사람이 있다.”⁹⁸⁾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 홍장을 하여 얼굴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宋朝에 들어오면 理學이 성행하여 “사람의 욕망을 없애고 天理를 따른다(去人欲存天理)”는 주장으로 통치 계급은 봉건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여인들을 엄격히 속박했다. 당시 회화·시 등의 문학작품에서도 간결하고 평범한 형식으로 여성의 의용장식(衣容粧飾)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미의식은 화려함을 배제시킨 단아한 풍격(風格)을 숭상, 표현한 것이었다. 唐朝 여인의 화장이 질고 화려한 반면에 宋朝 여인의 복식과 화장이 단아하고 우아했다는 것은 당과 송이 미에 대한 해석이 같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송나라는 비

교적 보수적이어서 복식과 화장은 꾸밈이 적은 자연적 양상을 띄었으며, 모양과 색채는 唐朝의 풍성함에 미치지 못했다. 宋代에는 唐代처럼 상투를 틀어 올리거나 머리를 따 비녀를 꽂는 등의 화려한 장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얼굴의 화장법에서도 변화는 있으나 질고 화려한 唐朝(호방농염;豪放濃艷)와는 전혀 다르다. 즉, 宋代 여인들은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화장(담아유유;淡雅幽柔)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송대의 많은 학자들은 복식의 간단·소박·청결·자연스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반대하였다. 이는 원채의 『세원』에 “오직 청결을 힘써 일반 민중과 다르지 않았다”⁹⁹⁾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단아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부러워한 宋의 휘종도 그의 詞에서 살구꽃을 의인화하여, “투명한 얇은 비단을 잘라, 가벼이 몇 겹으로 하고, 담담히 연지를 두루 발랐구나. 새롭고 정갈한 화장이 곱고 향기로워 예주궁녀가 마냥 부끄러움을 타네”¹⁰⁰⁾라고 하였다. 꽃모양의 화장장(花鈿粧)은 宋代에 와서도 널리 여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며, 태종순화(太宗淳化) 연대에 이르러서는 꽃 모양이 더욱 다양해졌다. 송나라 이덕재의 『조매방근』에 “아침에 일어나 나뭇가지의 차가운 빛이 있을 때, 수양장(壽陽粧)을 가볍게 화장한다”¹⁰¹⁾는 구절이나, 구양수의 「소충정·미의」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니 창가에 서리가 내렸다. 손에 입김을 불어 매장(梅粧)을 한다”¹⁰²⁾라는 기록에서 이를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밤에 화장한 예를 보여주는 기록도 보이는데, “촛불을 켜고 창가의 달빛을 틈타 초매(楚梅)가 처음으로 수양장(壽陽粧)을 한다”¹⁰³⁾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좀 특이한 경우로는 宋代에 미간에 연지를 바르고 작은 글씨를 쓰기도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¹⁰⁴⁾

그런가 하면 화전과 사홍에 대한 기록도 보여 “집집마다 여자아이들이 온 이마에 花鈿을 붙였다”¹⁰⁵⁾고 했으며, 왕십의 「완계사」에 “부채를 가볍게 흔드니 향이 난다, 사홍은 만래장(晚來粧)보다 아름답다”¹⁰⁶⁾고 했고, 안례도의 「축노인」에는 “게을러서 아직 화장을 지우지 않았다. 한가할 때 사홍을 그린다. 이 흔적은 매우 진하다.”¹⁰⁷⁾고 했다. 이것으로 화전과 사홍이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장선의 「경금지」詞에는 “양쪽 보조개화장(靨)을 하니 웃을 때 둥글게 된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¹⁰⁸⁾는 구절도 있다. 이것으로 보면 송대의 화장이 화려함이 약화된 것이라도 前代에 행해지던 화장 풍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의 面脂에는 태진홍옥고(太眞紅玉膏)와 손산소옥고(孫山少玉膏)가 있었다.¹⁰⁹⁾ 태진홍옥고의 제조법과 화장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행인·부피·활석·경분(杏

仁·夫皮·滑石·輕粉)을 같은 양의 가루로 만들어서 찌고, 소량의 사향을 첨가한다. 계란 노른자위를 고루 섞어서 아침 일찍 세수한 후에 그것을 펴 바른다. 그러면 백일 후에 붉은 옥처럼 아름답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산소옥고에 대해서는 “황벽나무 껍질 3寸, 土瓜(식물 이름) 3寸, 대추 7개를 가늘게 갈아서 고(膏)를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탕으로 만들어 얼굴을 닦는 데 쓴다. 10일간 사용하고 나면 얼굴이 어린 소녀처럼 된다”고 하였다. 이들 예를 통하여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피부 윤택제가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화(宣化) 지역에서 고분벽화가 있는 14좌의 요묘(遼墓)가 발굴(1971년부터 1998년까지)되었는데, 요대 남경·서경·동경(遼代 南京·西京·東京) 지역이었다. 그 중 장문조(張文藻)(1093년葬禮)묘의 전실 西壁에는 5인의 악기 연주, 1인의 무도(舞蹈), 1인의 요고무(腰鼓舞) 등 7인이 묘사되어 있는데 女裝의 남자들이다. 또한 장광정(張匡正) 벽화묘(壁畫墓)에는 8인의 남장여인이 있어, 1인은 무용을 하고 있고 7인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두 뺨과 입술에 주홍색 칠을 하고 있다.¹¹⁰⁾ 이는 遼代 무악인(舞樂人)의 흉상으로 보인다. 한편 山西 大同 十里鋪에서 遼나라 천경(天慶) 9년(1119년)에 벽돌로 만든 무덤 2개가 발견되었는데, 묘에는 하녀를 그린 벽화가 있었으며 양 광대뼈 부분에 흉장을 하고 있었다.

元 이후에는 화장을 열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사회·경제·정치 등 각 방면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당시의 화장술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장가구의 「소양주·피서즉사」에 “석양이 건물 창가에 걸쳐 있네, 누가 볼까? 비단부채로 흉장한 얼굴을 가린다”¹¹¹⁾거나, 이호고의 「사문도장생자해」에 “미간을 움직이니 화전도 움직인다. 소매 안의 열 개의 하얀 손을 볼 수 있다”¹¹²⁾는 기록, 그리고 작자 미상의 「희춘래」에 “녹색 빛 옷소매를 천천히 열어 희고 긴 손으로 화전을 미간에 붙인다”¹¹³⁾ 등의 기록이 있다. 모두 당시의 화장이 요란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明朝 여인들의 얼굴 화장은 비록 연지와 분을 바르는 화장은 빼놓을 수 없지만, 화려하지 않으면서 수려하고 청아함을 중시하는 쪽에 치우쳐 있었다. 이때의 화장술이 대체로 가늘고 약간 굽은 눈썹, 가늘고 작은 눈, 얇은 입술을 선호했음이나, 깔끔하고 흰 얼굴에 꽃장식 없이 청순함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고상한 운치를 지니고 있음이 이를 말해 준다. 왕삼빙의 『고금사물고』에 “요즘 여인들은 분염(粉靨)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달이나 동전 모양 같다. 또 연지같이 붉은 색으로 그렸다”¹¹⁴⁾고 했다. 또한 주청원의 『서호이집』에 “그 여인은 16세이다.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미간에 화전을 붙였다.”¹¹⁵⁾는 기록으로 보아

여전히 장염과 화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인의 『투화가』에 “아름다운 여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방을 나와 거울을 들고 흉장한 얼굴을 본다¹¹⁶⁾고 했는데, 明·清 이래 여성 예교(禮教)의 구속이 엄격하여 당시의 여성에게는 ‘절제하는 열녀’, ‘길을 걸을 때는 온중하게 고개를 숙여 앞을 향해 걸어야 한다’, ‘밖으로는 단속하고 안에서는 청결해야 한다’¹¹⁷⁾는 등의 규범화된 행위가 요구되었다. 또한 여자들은 말을 한 번 하면 실천해야 하고, 언동에 따른 강한 규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清代 여자의 입술화장 방식을 보면, 연지를 이용해서 윗입술은 전부 바르고 아랫입술은 중간부분만 바른다. 그래서 마치 앵두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또한 위·아래 입술의 중간에 한 방울씩 그렸다. 북경의 고궁 박물관에 청나라 제후의 그림이 수장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후비(后妃)가 이러한 화장을 했으며 이것은 곧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다. 그러나 특수층 여자들 사이에서는 만주족의 화장술이 성행¹¹⁸⁾하여 볼과 이마에 분과 연지를 칠하고 눈썹은 먹으로 진하게 그리며 양 볼에는 두 개의 둥근 연지(胭脂)를 찍기도 했다.

도곡의 『청이록』에, “강남 사람인 이진(李進)은 건양(建陽)에서 나는 다유 화전(茶油 花鉤)을 사용하였다.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르고 매우 귀엽다. 궁안의 여인들은 얼굴에 이것을 사용해서 담장(淡粧)을 하였다....”¹¹⁹⁾는 기록이 있어 화전이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수록(인명) 下士의 『임란향』에 “한 남자에게 다섯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것이 모두 달랐다. 큰 부인은 종종 도화장을 했다”¹²⁰⁾는 기록과, 왕로서의 『승정공사』에 “도화장은 열고 주운장(酒暈粧)은 짙다. 마치 지분(脂粉)을 온몸에 바른 것 같다”¹²¹⁾는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에서 당시에 다양한 흉장이 일반화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서가의 『청패류초』에는 “광서제(光緒帝) 시기에 상해(滬)의 기생들은 진하게 연지화장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대가집의 규수들도 분분히 그것을 본받았다. ...여학당이 크게 성행하면서 여학생들은 옅은 화장과 단아한 복장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연지의 화려함을 모두 씻어내서 현재는 분과 연지를 바르는 악습은 다시 부활되지 않았다”¹²²⁾는 구절이 있다. 이는 清代 말기에 서구식 여성교육이 보편화됨으로써 여학생들이 소복과 옅은 화장을 선호하게 되어 연지화장의 양식이 변화, 소멸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실로 2천여년 동안 성행하였던 연지의 홍화장(紅化粧) 풍속은 清代 말에 이르러 비로소 쇠락한 것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연지화장 전파와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홍(紅)화장의 기원은 상주(商周) 때이며 원래 주사(朱砂)가 주 재료였으나, 홍화를 사용한 연지 화장은 중국 漢의 무제(武帝)가 흉노를 격파(기원전 121년)한 후, 장건의 서역출사에 의해 중국으로 전래 되었으며 홍화를 재배함으로써 일반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영토확장으로 인한 국경의 와해로 타 제국과의 교류와 교역이 활발해졌고, 종법제도의 원리를 매개로한 봉건 군주제에 의한 왕조와 왕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권력의 난립과 통합, 분열과 통일 등 끊임없는 각축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호화로운 궁정문화를 향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은 궁정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사랑에 대한 암투와 총애를 받고자하는 마음의 표출, 첩이나 하녀들에 대한 질투 등과 결부되어 연지화장을 발달시킨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 연지화장 양상은 문화 개방과 호화로운 궁중문화에 따른 미용적 과대 발달과 독특한 기호로서의 사용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연지화장의 종류나 명칭 및 방법, 화장의 형태나 모양, 화장 부위나 위치, 사용하는 재료의 색깔, 화장하는 시간대 등이 다양화된 양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홍화, 연지화장품, 연지화장, 미용, 기호, 궁중 문화

참 고 문 헌

金素賢 (1994) 唐시대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1982)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閔丙勳 (2000) 실크로드와 고대한국문화 실크로드 3000년

전.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2000) 실크로드 3000년전 온양민속박물관.
 이순자 (1997) 당대와 송대의 여자 面飾에 관한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Vol. 8(2)
 임명미 (2003) 遼代 古墳壁畫상의 舞樂人 服飾에 관한 研究 服飾 53(6)
 정수일 (2001)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高承 (1939) 事物紀原 卷三 商務印書館叢書集成初編本.
 高春明 (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文化出版社.
 段成式 (1981) 酉陽雜俎 前集卷八, 中華書局.
 唐宋傳奇選 (1979) 人民文學出版社.
 戴平 (1994) 中國民族服飾文化研究 上海出版社.
 馬縉 (1939) 中華古今注 卷中 商務印書館.
 杉本正年, 문광희 역 (1997) 동양복장사논고 -고대편- 서울: 경춘사.
 杉本正年, 문광희 역 (1997). 동양복장사논고 -중세편- 서울: 경춘사.
 先秦漢魏晉南北朝詩 (1983) 梁詩卷十九 中華書局.
 先秦漢魏晉南北朝詩 (1983) 齊詩卷四 中華書局.
 王三聘 (1937) 古今事物考 卷六 商務印書館國學基本叢書.
 樂府詩選 (1957) 人民文學出版社.
 王三聘 (1937) 古今事物考 卷六 商務印書館國學基本叢書.
 雲麓漫鈔 (1957) 卷七 古典文學出版社.
 元曲選 (1958) 中華書局.
 元人小令集 (1962) 中華書局.
 劉禹錫 (1975) 劉禹錫集 卷十三 上海人民出版社.
 李秀蓮 (2000) 中國化粧史概說 中國紡織出版社.
 任維信 本國歷史圖解精編 東山出版社.
 全唐詩 (1986) 卷二二五 上海古籍出版社影印本.
 全唐詩 (1960) 卷四三七 中華書局.
 全宋詞 (1965) 中華書局.
 周迅·高春明. 栗城延江 譯 (1993) 女性服裝史 京都書院.
 陳元靚 (1963) 事林廣記·後集 卷十 中華書局. 影印本.
 花間集校 (1957) 人民文學出版社.
 華梅 (1993)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5. 12. 06 접수; 2006. 04. 13 채택)

- 1) 閔丙勳(2000), 「실크로드와 고대한국문화」, 실크로드 3000년전, 온양민속박물관, 213
- 2) 冒頓單于: 목돌 ; 재위연대 B.C.209년~B.C.174년
- 3) 흉노의 2대 왕인 모둔선우의 왕비를 閼氏(아씨 또는 연지)라고 함. 前漢書 卷94上, 匈奴列傳, 3749
- 4)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1982), 동아세계대백과사전, 흉노條, 동아출판사
- 5) 軍臣單于; 재위연대 B.C.160년~B.C.126년
- 6) 呼韓耶單于; 재위연대 B.C.58년~B.C.31년
- 7)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287
- 8) 泥婆羅·黨項·高昌·吐谷渾·焉耆·龜茲·疏勒·于闐·天竺·罽賓·康·波斯·拂菻·大秦
- 9) 閔丙勳(2000), 앞의 책, 213~214
- 10) 羌·氏·吐谷渾·西遼·鮮卑·柔然·突厥·위구르(回鶻)·티벳(吐蕃)·탕구트(党項)·거란(契丹)·여진(女眞)·몽골·티무르제국·오스만제국 등
- 11) 李秀蓮(2000), 中國化粧史概說, 中國紡織出版社, 14~15 “在紅藍傳入之前 中國婦女以朱砂作爲紅粧的材料”
- 12) 本草綱目
- 13) 雲麓漫鈔(1957), 卷七, 古典文學出版社. 106 “黃藍 張騫所得 今滄海亦種 近世人多種之 收其花 俟幹 以染帛 色鮮于茜 謂之‘眞紅’ 亦曰‘幹紅’ 目其草曰‘紅花’ 以染帛之余爲燕支.”
- 14) 替代, 崔豹의古今注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 15) 戴平(1994), 中國民族服飾文化研究, 上海出版社, 219
- 16) 桑原鷲藏(1933), 「隋唐時代に支那に來往した西域人に就いて」, 東洋文史論叢, 357. 金素賢(1994), 「唐時代の 胡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재인용
- 17) 向達(1957), 唐代長安與西域文明, 北京新華書店. 金素賢, 위의 책, 15, 재인용
- 18) 金素賢, 위의 책, p. 15
- 19) 杉本正年(문광희)(1997), 東亞복장사논고 -고대편-, 서울: 경춘사, 274
- 20) 이순자(1997), 「당대와 송대의 여자 面飾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Vol.8(2), 95
- 21) 李秀蓮, 앞의 책, 11
- 22) 詩經, “自伯之東 首如飛蓬 豈無膏沐? 誰適爲容!”
- 23) 文選(1977) 卷十九, 中華書局, 268. “眉聯娟以蛾揚兮 朱脣的其若丹.”
- 24) 古代 건직물에 그린 그림
- 25) 李秀蓮, 앞의 책, 17
- 26) 宇文士, 粧臺記, “始皇宮中 …… 皆紅粧翠眉.”
- 27) 高春明(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文化出版社, 356
- 28) 李秀蓮, 앞의 책, 28
- 29) 劉熙(1939), 釋名 卷四, 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76. “脣脂 以丹作之 象脣赤也.”
- 30) 高春明, 위의 책, 362
- 31) 先秦漢魏晉南北朝詩(1983), 梁詩 卷二十六, 中華書局, 2063. 劉孝勝, 「妄薄命」, “愁眉歇巧黛, 啼粧落艷紅”
- 32) 중국 史學家 向達이 말하는 吐蕃(티벳) 풍속의 붉게 화장한 啼粧이 아닌가 생각된다.
- 33) 李秀蓮, 앞의 책, 22~25
- 34) 西漢: 哀帝 때 元壽元년에 大月氏使者東來, 有一位博士弟子跟他受浮屠經.
東漢: 明帝 때 遣蔡愔等往大月氏求佛經. 永平十年에 天竺沙門攝摩騰, 竺法蘭譯四十二章經, 爲中國譯佛經之始.
魏 : 文帝 때 中國人剃髮爲僧, 始於此時.
吳 : 大帝 때 江南佛法大行, 始於此時, 金陵第一座廟寺即孫權所建.
東晉: 西域高僧東來, 以佛圖澄, 鳩摩羅什最者.
任維信, 「本國歷史圖解精編」, 東山出版社, p.129
- 35) 藝文類聚(1982) 卷七十九, 上海古籍出版社, 1352. “稅衣裳兮免簪簪 施華的兮結羽釵.”
- 36) 太平御覽, 3186. “珥明璫之迢迢 點双的以發姿.”
- 37) 丹脂는 面脂에 연지인 紅花를 넣어 만든 것
- 38) 王嘉, 拾遺記, “諸嬖人欲要寵 皆以丹脂點頰 而後進幸.”
- 39) 李秀蓮, 앞의 책, 32
- 40) 周迅·高春明(栗城延江 譯)(1993), 女性服裝史, 京都書院, 119
- 41) 先秦漢魏晉南北朝詩(1983) 齊詩卷四, 中華書局, 1447. 齊謝朓, 贈王主簿, “日落窓中坐 紅粧好顏色.”
- 42) 先秦漢魏晉南北朝詩(1983) 梁詩卷十九, 中華書局, 1900. 武陵王, 明君詞, “誰堪覽明鏡 持許照紅粧.”
- 43) 段成式(1981), 酉陽雜俎 前集卷八, 中華書局, 78. “蓋自吳孫和鄧夫人也. 和寵夫人 嘗醉舞如意 誤傷鄧頰 血流 嬌婉弥苦 命太医合藥 ……及差 痕不滅 左頰有赤點如痣 視之 更益其妍 諸嬖欲要寵者 皆以丹點頰 而後進幸焉.”
- 44) 張泌의 粧樓記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吳孫和悅鄧夫人 嘗置膝上 和弄水精如意 誤傷夫人頰 ……及差(瘥)有赤點 更益其妍 諸嬖人 更以丹脂點頰以要寵.”
- 45) 劉熙의 釋名의 기록으로 보아 漢代 라고 생각된다.
- 46) 李秀蓮, 앞의 책, 37~38
- 47) 花鈿에는 이마에 붙이는 얼굴장식과 비녀 등을 사용하는 머리장식, 두 종류가 있다.
- 48) 馬縞(1939), 中華古今注, 卷中 商務印書館. “秦始皇好神仙 常令宮人梳仙髻 帖五色花子 畫爲云風虎飛升.”
- 49) 上官婉兒을 말한다. 初唐사람인데, 그녀는 14살 때부터 宮에서 문학을 주관하고, 항상 武則天에게 詔命(조령)을 써주었다.
- 50) 段成式(1981), 酉陽雜俎, 中華書局 “今婦人面飾用花子 起自昭容上官氏所制 以掩點迹.”

- 51) 段公路, 앞의 책, “天后每對宰臣李對事 昭容窺窺. 上覺 退朝怒甚. 取甲刀札于面 上不許拔 昭容遽爲乞拔刀子詩 后爲花子以掩痕也.”
- 52) 劉孝綽, “不見青絲騎 徒勞紅粉粧”
- 53) 樂府詩選(1957), 人民文學出版社. 121. “阿姉聞妹來 當戶理紅粧”
- 54) 高春明, 앞의 책, 382
- 55) 高春明, 위의 책, 382
- 56) 李秀蓮, 앞의 책, 45
- 57) 高承(1939), 事物紀原 卷三, 商務印書館叢書集成初編本, 19. “水文宮中紅粧 謂之桃花面.”
- 58) 李秀蓮, 위의 책, 45
- 59) 杜甫, 「新婚別」, “羅襪不復施 對君洗紅粧 ”
- 60) 李白, 「浣紗石上女」, “玉面耶溪女 青娥紅粉粧 ”
- 61) 王建, 宮詞, “射生宮女宿紅粧 清得新弓各自張 ”
- 62) 王仁裕, 開元天寶遺事, “貴妃每至夏月 常衣輕綃 使侍兒交扇鼓風 猶不解其熱 每有汗出 紅膩而多香 或拭之于巾帕之上 其色如桃紅也.”
- 63) 王建, 宮詞, “舞來汗濕羅衣撤 樓上人扶下玉梯. 歸到院中重洗面, 金盆水里拔紅泥.”
- 64) 花間集校(1957), 人民文學出版社, 40. 唐 韋莊, 「江城子」詞: “朱脣動 先覺口脂香.”
- 65) 唐宋傳奇選(1979), 人民文學出版社, 109 “捧覽來問 撫愛過深. 儿女之情 悲喜交集. 兼惠花勝一合 口脂五寸致耀首膏 脣之飾 但積悲嘆耳…….”
- 66) 온양민속박물관(2000), 실크로드 3000년전, 온양민속박물관, 186
- 67) 杉本正年 (문광희 역), 앞의 책, 231
- 68) 段成式, 앞의 책, 78. “房孺復妻崔氏 性忌 左右婢不得濃粧高髻 月給胭脂一豆 粉一錢.”
- 69) 段成式, 위의 책, 79. “大歷以前 士大夫妻多妒悍者 婢妾小不如意 輒印面 故有月點 錢點.”
- 70) 李秀蓮, 앞의 책, 51~52
- 71) 元稹, 「有所教」, “莫畫長眉畫短眉 斜紅傷豎莫傷垂.”
- 72) 羅虬, 「紅兒」, “一抹濃紅傍臉斜 粧成不語獨攀花 ”
- 73) 李秀蓮, 앞의 책, 53~54
- 74) 李復言, 續玄怪錄 定婚店, “(韋固) 因妻一女 可年十六, 七 容色華麗 固稱愜之極. 然其眉間常貼一花鈿 雖沐浴 閑處 未嘗暫去.”
- 75) 杉本正年 (문광희 역), 앞의 책, 56
- 76) 點脣(점순)을 點脣(점진)이라고 한 논문이 있는데 脣은 脣의 약자이다.
- 77) 陶谷, 清異錄, “僖昭時 都倡家竟事粧脣 婦女以此分妍與否 其點注之工 名字差繁.”
- 78) 臙脂羶品·石柳嬌·大紅春·小紅春·嫩吳香·半邊嬌·萬金紅·聖檀心·露珠兒·內家圓·天宮巧·格兒股·淡紅心·猩猩暈·小珠龍·格雙唐·眉花奴
- 79) 陳東原은 16종이라 하였다.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67年, p. 103
- 80) 제장(啼粧)은 중국 史學家 向達에 의하면 漢代에도 유행하였으며 원래 吐蕃(티벳)의 풍속이다. 그러나 漢代 末 양기의 아내 孫壽가 유행시켰던 啼粧과는 화장 방법에 거리가 있다.
- 81) 白居易, 「時世粧」, “……妍媸黑白失本態 粧成僅似含悲啼.”
- 82) 戴平, 앞의 책, 219
- 83) 任維信, 本國歷史圖解精編, 東山出版社, 42
 棄宗弄贊: 지금의 西藏에 위치한 吐蕃의 君長 ‘棄宗弄贊’이라 함.
 墀德祖贊: 戴平은 ‘墀德祖贊’이라함. 戴平, 앞의 책, 219
 棄贊: 「舊唐書」에는 ‘棄贊’이라 나옴
 松贊干布: 金榮美는 ‘松贊干布’라 함. 金榮美, 앞의 책, 5
- 84) 舊唐書 吐蕃傳, 貞觀 15年, “公主惡其人醜面, 棄贊令國中權且罷之……”
- 85) 金素賢, 앞의 책, 138
- 86) 史遊(1934), 急就篇, 商務印書館四部叢刊續編本, 40. “芬薰脂粉膏澤筒”
- 87) 全唐詩(1986) 卷二二五, 上海古籍出版社影印本, 547. “口脂面藥隨恩澤 翠管銀鬢下九霄”
- 88) 劉禹錫(1975), 劉禹錫集 卷十三, 上海人民出版社, 119. 「爲李中丞謝賜紫雲面脂等表」 “奉宣聖旨 賜臣紫雲 紅雪 面脂 口脂各一盒”
- 89) 腊日(납일):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에 농사를 위해 지내던 제삿 날 또는 음력 12월
- 90) 段成式(1981), 西陽雜俎 前集卷一, 中華書局, 2. “腊日 賜北門學士口脂 蜡脂 盛以碧鏤牙筒”
- 91) 高春明, 앞의 책, 393
- 92) 周迅·高春明 (栗城延江譯), 앞의 책, 119
- 93) 蜀韋莊, 「嘆落花」, “西子去時遺笑靨 謝娥行處落金鈿”
- 94) 張夫人, 「拾得韋氏花鈿以詩寄贈」, “今朝粧閣前 拾得舊花鈿. 粉汚痕猶在 塵侵色尚鮮. 曾經纖手里 拈向翠眉邊. 能助千金笑 如何忍弃捐!”
- 95) 全唐詩(1960) 卷四三七, 中華書局, 4851. 白居易, 岸梨花, “最似嬌閨少年婦 白粧素袖碧紗裙”
- 96) 紅皓, 「小亭落成都宮有詩次韻以謝」, “披襟散發無妨醉 況有紅粧二八陳”
- 97) 全宋詞(1965), 中華書局, 294. 蘇軾, 「南歌子」 “輕盈紅臉小腰身 疊鼓忽催花拍 斗精神.”
- 98) 晁補之, 「鷓鴣天」, “西樓重唱池塘好 應有紅粧斂翠眉.”
- 99) 袁采, 世苑, “惟務潔淨 不可異衆”
- 100) 華梅(1993), 中國服飾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64. “裁剪冰綃 輕疊數重 冷淡胭脂勻注. 新樣靚粧 艷溢香融 羞殺蕊珠宮女”
- 101) 全宋詞(1965), 中華書局, 739. 李德載, 「早梅芳近」, “曉來枝上斗寒光 輕點壽陽點.”

- 102) 全宋詞(1965), 中華書局, 140. 歐陽修, 「訴衷情·眉意」, “清晨帘幕卷輕霜 呵手試梅粧。”
- 103) 全宋詞(1965), 中華書局, 667. 毛滂, 「浣溪沙·月夜對梅小酌」, “蠟燭花中月滿窗 楚梅初試壽陽粧。”
- 104) 辛棄疾, 앞의 책, 「鵲橋仙·爲岳母慶八十」, 臙脂小字點眉間 猶記得舊時宮樣
- 105) 劉安上, 「花鬢鎖」詩, “.....家家小兒女 滿額點花鈿。” 宋詩紀事(1983) 卷三十五, 上海古籍出版社, 896
- 106) 全宋詞(1965), 中華書局, . 698. 王審, 「浣溪沙」, “扇影輕搖一線香 斜紅均過晚來粧 ”
- 107) 全宋詞(1965), 中華書局, 244. 晏几道, 「丑奴兒」, “嬌慵未洗勻粧先 閑印斜紅 新恨重重”
- 108) 張先, 「慶金枝」, “兩嬌鬢 笑時圓……妍處不堪憐。”
- 109) 陳元靚(1963), 事林廣記·後集 卷十, 中華書局, 影印本, “環載錄有幾種帶有藥物的面脂 以多味中草藥合成。如太真紅玉膏: ‘杏仁, 夫皮, 滑石, 輕粉各等分爲末, 蒸過, 入腦麝少許, 以鷄子清調均 早起洗面畢傅之, 百日後色如紅玉’。又孫山少玉膏: ‘黃栢皮三寸 土瓜根三寸 大棗七個 同妍細爲膏 常早起化湯洗面用 旬日, 容如少女。’ ”
- 110) 임명미(2003), 「遼代 古墳壁畫상의 舞樂人 服飾에 관한 研究」, 服飾 53(6), 8~9
- 111) 元人小令集(1962), 中華書局, 15. 張可久, 「小梁州·避暑卽事」, “畫樓帘影挂斜陽 誰凝望 紈扇掩紅粧”
- 112) 元曲選(1958), 中華書局, 1704. 李好古, 「沙門島張生煮海」, “蛾眉輕展花鈿動 袖儿籠指十葱 ”
- 113) 元人小令集(1962), 中華書局, 96. 「喜春來」, “翠袖輕舒玉笋纖 花鈿宜點黛眉尖”
- 114) 王三聘(1937), 古今事物考 卷六, 商務印書館國學基本叢書, 126. “近世婦人粧 喜作粉靨 如月形 如錢樣 又以朱若臙脂點者。”
- 115) 周清源, 西湖二集, “那女子年可十六也 顏色艷麗 眉間貼一花鈿。”
- 116) 唐寅(1925), 妒花歌 卷一, 大道書局, 17. “佳人曉起出蘭房 折來對鏡比紅裝”
- 117) 禮婦烈女. 行步穩重 低首向前 外檢束 內靜修
- 118) 李秀蓮, 앞의 책, 98
- 119) 陶谷, 앞의 책, “江南晚李進建陽茶油花子 大小刑制各別 極可愛 宮嬪纓金于面 皆以淡粧。”
- 120) 林蘭香(1985), 沈陽春風文藝出版社. “五位奶奶粧束各有風致……大娘常作桃花粧.”
- 121) 王露瀾, 崇禎宮詞, 借月山房滙鈔本 清嘉慶十三年刊行, “淡作桃花濃酒暈 分明脂粉畫全身 ”
- 122) 徐珂, 清稗類鈔, 商務印書館1917年排印本, 第46冊, 32. “光緒時, 滬妓喜施極濃臙脂 因而大家閨秀 紛紛效尤……自女學堂大興 而女學生无不淡裝雅服 洗盡鉛華 無復當年涂粉抹脂之惡態 北里亦效之。”